

齒 醫 學 用 語 集 발간

齒協은 오랜 刻苦 끝에 齒醫學用語集 第1輯을 發刊했다.

여기에 齒醫學用語制定審議委員會 委員長이신 金英海교수의 發刊辭를 紹介하여 用語集制定의 當爲性과 意義를 찾아 보기로 한다.



齒 醫 學 用 語 集

— 第I輯 1986年 —



大韓齒科醫師協會

發 刊 辭

우리나라는 今世紀初에 이르러서야 비로서 現代科學文明에 接하게 되었고, 그後 몇차례의 戰爭을 經驗하면서 科學發展은 더욱 加速化 되었읍니다.

過去 10年, 20年에 이르게 된 成果만 하더라도 人類가 數千年間에 걸쳐 얻은 知識보다 越等히 精巧하고 많은 量이었음을 우리는 알고있으며 이러한 傾向은 더욱 深化되어가고 研究機關 또한 世界的 規模로 불매 엄청난 數이고 여기에서 얻은 새 知識에 關한 情報는 想像을 넘는 分量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

齒科醫療事業에 從事하고 있는 우리들 齒科醫師도 더욱 훌륭한 醫療惠澤을 提供하기 위해서 必要한 關聯分野 知識을 吸收하고 業務에 反映시켜야 할 義務를 느끼게 됩니다. 物理, 化學 및 生物學에서 얻은 成果는 우리 分野에서도 넓게 받아들여져 우리의 日常診療가 더욱 快適하고 또 受患者도 平穩한 마음으로 治療를 받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.

새 知識의 傳達은 亦是 出版物에 의한 것이 가장 많고 基礎科學 發展에 따른 數많은 새 用語가 登場하고 있습니다.

이러한 外國의 새 語彙를 適切な 우리말로 옮겨 놓음으로써 文獻의 理解도 훨씬 쉬워지고 最新의 齒科情報나 知的 成果를 빨리 우리 것으로 消化 吸收할 수 있을 것입니다.

大韓齒科醫師協會에서 이 點을 着眼하여 用語集을 펴내게 된것은 우리 모두에게 크나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確信하는 바입니다.

用語制定審議委員 여러분이 바쁜 中에도 時間을 割愛하시어 2年間に 걸쳐 黙然히 努力한 所産인 第1輯을 얻게 된것을 고맙게 생각하는 바이며, 許多한 誤謬와 많은 訂正이 必要할 것입니다. 그러나 이첫版이 骨格이 되어 더 많은 補充을 거듭하면서 보다 넓은 冊字가 되기를 祈願하는 마음 懇切합니다.

1986. 3.
大韓齒科醫師協會
齒醫學用語制定審議委員會
委員長 金 英 海